

# 불영사 응진전 수리보고 (佛影寺 應眞殿 修理報告)

田 有 泰

〈文化財管理局 建築技佐〉

鄭 相 澈

〈文化財管理局 建築技士〉

## 目 次

- |                |              |
|----------------|--------------|
| 1. 佛影寺와 佛影溪谷   | 나. 基壇 및 基礎工事 |
| 2. 應眞殿 補修 推進經緯 | 다. 木工事       |
| 3. 應眞殿의 構造     | 라. 美裝工事      |
| 4. 補修工事 概要     | 마. 蓋瓦工事      |
| 가. 解體工事        | 바. 丹青工事      |

## 1. 불영사(佛影寺)와 불영계곡(佛影溪谷)

불영사(佛影寺)는 경상북도(慶尙北道) 울진군(蔚珍郡) 서면(西面) 하원리(下院里)에 위치하고 있다. 경주(慶州)쪽에서 국도(國道)인 동해고속화도로(東海高速化道路)를 따라 울진(蔚珍)에 이르면 태백산맥(太白山脈)을 관통(貫通)하여 영주(榮州)로 연결(連結)되는 36번 국도(國道)와 이어진다. 서쪽으로 이어지는 도로(道路)를 따라가면 좌우(左右)로 끝없이 전개(展開)되는 기암절벽(奇岩絶壁)의 신비로움과 괴석(怪石)사이의 노송(老松), 그리고 그 밑을 굽이쳐 흐르는 옥류(玉流)의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명승(名勝) 불영계곡(佛影溪谷) 태고(太古)의 자연(自然)속에 묻혀 23km 쯤 가면 불(佛)고개에 다다르고 도로좌측에 불영사입구(佛影寺入口) 표식(標識)을 발견하게 된다. 포장되지 않은 좁은 자연도로(自然道路)를 따라 약 500m 쯤 걸어들어 가면 천년유구(千年遺構)가 숨쉬고 있는 불영사(佛影寺)에 이른다. 이곳은 명승(名勝) 6號로 지정(指定)된 불영계곡(佛影溪谷)의 가장 아름다운 선경(仙境)이 펼쳐져 있는 곳이며 불영계곡(佛影溪谷) 왕피천(王避川) 지류(支流)인 광천(光川)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불영사(佛影寺)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울창한 굴참나무와 소나무 숲속에 사찰(寺刹) 건물(建物)이 적당하게 배치(配置)되어 자연(自然)과 인공(人工)의 조화(調和)를 이루고 있다. 불영사(佛影寺)를 감싸고 흐르는 불영계곡(佛影溪谷)은 서(西)쪽에 통고산(通古山)(1,066m)과 세덕산(山)(740m)이, 남(南)쪽으로는 천축산(天竺山)(652m)이 마주하여 협소(狹小)한 계곡(溪谷)사이로 급경사를 이루어 이를 따라 광천(光川)(준용하천(準用河川))이 서

(西)에서 동(東)으로 흐르고 있다. 광천(光川)은 불영사(佛影寺) 입구(入口)에서 시작되어 행곡리(杏谷里)까지 계곡(溪谷)을 형성(形成)하고 그 좌우(左右)에 수많은 기암괴석(奇岩怪石)이 깎아지른 듯 절경(絶境)을 이루어 장장(長長) 15km에 달한다. 기암괴석(奇岩怪石) 위에는 수십백년생(數十百年生)의 노송(老松)이 하늘을 찌르고 기암(奇岩)과 노송(老松)사이의 작은 계곡(溪谷)마다 옥류수(玉流水)로 소(沼)를 이뤄 구비치는 물결 또한 아름다운 자연(自然)의 극치(極致) 바로 그것이다.



佛影溪谷의 奇岩과 玉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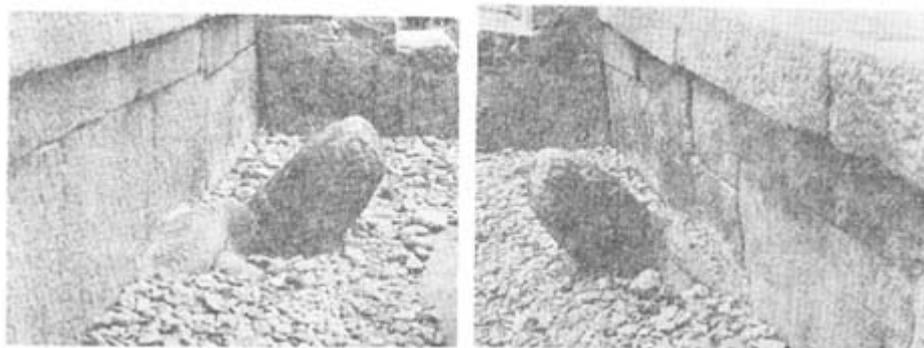
불영계곡의 기암과 옥류  
(佛影溪谷의 奇岩과 玉流)



佛影寺全景

불영사전경(佛影寺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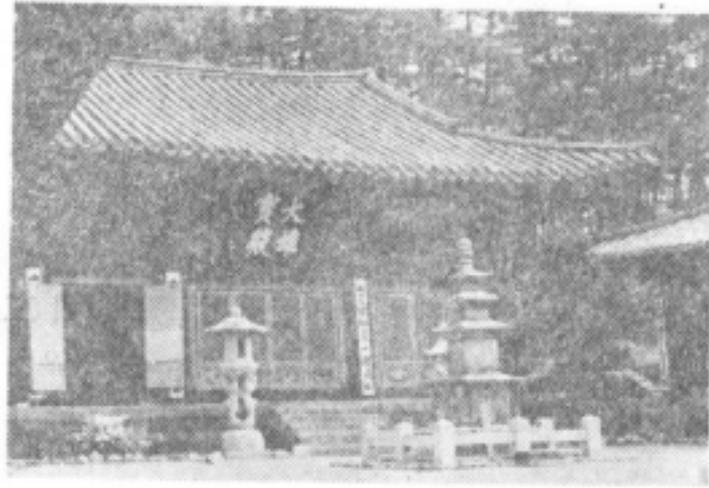
불영사(佛影寺)는 신라(新羅) 문무왕(文武王)때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영천(榮川)부석사(浮石寺)를 창건(創建)한 후 동(東)에도 명산(名山)이 있음을 서기(瑞氣)로 직감(直感)하고 여기에 당도(當到)하니 산세(山勢)와 소(沼)가 인도(印度)의 천축산(天竺山)과 비슷하기로 산 이름을 천축산(天竺山)이라 하고 그 아래 큰 연못에 있는 아홉 마리의 용(龍)을 주문(呪文)으로 쫓아낸후 그 자리에 절을 지어 구룡사(九龍寺)라 하였다 하며 그 후 절 서편(西便)에 부처님의 형상을 한 바위가 우뚝 솟아있어 그 바위가 연못에 비치는 모습이 부처님의 환영(幻影)과 같아 불영사(佛影寺)라 개칭(改稱)하였다고 하는데 조선(朝鮮) 태조(太祖) 6년(1397) 화재(火災)로 소실(燒失)되어 소운대사(小雲大師)가 중건(重建)하였으나 그 후에도 여러번의 화재(火災)가 있어 소실(燒失)되었고 임진왜란시(壬辰倭亂時)에는 지금의 응진전(應眞殿)을 제외하고는 모두 병화(兵火)를 입었다 한다. 현재 있는 건물(建物)은 보물(寶物) 第 730호(號)인 응진전외(應眞殿外)에 대웅보전(大雄寶殿) 극락전(極樂殿) 관음전(觀音殿) 명부전(冥府殿) 영산전(靈山殿) 조사당(祖師堂) 범종루(梵鐘樓) 칠성각(七星閣)등의 건물(建物)과 무영탑(無影塔)이 있으나 창건당시(創建當時)의 것으로는 무영탑(無影塔)과 대웅보전(大雄寶殿)의 기단(基壇) 그리고 대웅보전(大雄寶殿) 기단(基壇) 좌우(左右)를 받치고 있는 돌거북 2기등(基等)으로 생각된다.



大雄寶殿 基壇 下部 돌거북

**대웅보전 기단 하부 돌거북  
(大雄寶殿 基壇 下部 돌거북)**

불영사(佛影寺) 경내(境內)의 건물(建物)을 대략 살펴보면 정면(正面) 3간(間), 측면(側面) 3간(間)의 겹처마 팔작건물(建物)로 다포(多包)집인 대웅보전(大雄寶殿)에는 5점의 정화(幀畫)가 있는데 모두 조선말기(朝鮮末期)의 것이며 전면(前面) 기단(基壇)을 받치고 있는 돌거북이 특이하다. 그 좌측(左側)의 명부전(冥府殿)은 정면(正面) 3간(間), 측면(側面) 3간(間)의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안에는 칠위(七位)의 신장(神將)대왕을 정화(幀畫)로 그려 봉안(奉安)하고 있는데 크기는 길이 2.09m 폭 2.65m이다. 부처바위 아래에 있는 극락전(極樂殿)은 정면(正面) 3간(間), 측면(側面) 2간(間)으로 주심포양식(柱心包樣式)의 겹처마 맞배 집이며 삼존(三尊)의 목불좌상(木佛座像)이 봉안(奉安)되어 있는 아담한 건물(建物)이다.



佛影寺大雄寶殿

불영사대웅보전  
(佛影寺大雄寶殿)

## 2. 응진전(應眞殿) 보수공사(補修工事) 추진경위(推進經緯)

응진전(應眞殿)은 1981年 7月 15日 보물(寶物) 第 730호(號)로 지정(指定)된 건물(建物)로서 지정당시(指定當時) 건물후면(建物後面)의 기와가 심히 노후파손(老朽破損) 및 이완(弛緩)되어 일부 누수(漏水)되고 있었으며 초석(礎石)의 부분적인 침하(沈下)로 인하여 건물(建物)이 동남향(東南向)으로 약 5°정도 기울어져 있었다. 1982年 10月 22日 울진군(蔚珍郡)에서는 사찰동의서(寺刹同意書)를 첨부(添附)하여 건물보수(建物補修)를 위한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 현상변경(現狀變更) 허가신청(許可申請)을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제출하였다.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설계심사회의(設計審査會議)에서는 보수대상(補修對象) 문화재(文化財)의 중요성(重要性)을 감안(勘案)하여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기술공무원(技術公務員)의 기술감독(技術監督)을 받아 해체보수(解體補修)하되 풍판설치여부(風板設置與否)등 미확인부분(未確認部分)에 대한 고증조사(考證調査)를 병행 실시하고 사용(使用)되었던 구부재(舊部材)를 최대한 보강사용(補強使用)하여 원형보존(原形保存)에 최선(最善)을 다 하도록 보수범위(補修範圍)를 확정(確定)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에 심의제안(審議提案)하였다. 1982年 11月 24日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第 1분과(分科) 第 15차 회의(會議)에서는 제안(提案)된 원안(原案)대로 심의의결(審議議決)하여 1982年 11月 30日 불영사(佛影寺) 응진전보수(應眞殿補修)를 위한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 현상변경(現狀變更) 사항이 허가(許可)되었고 설계도면(設計圖面)과 설계내역서(設計內譯書)가 승인(承認)되었다. 승인(承認)된 보수공사(補修工事) 내용(內容)은 다음과 같다.

- 기단해체보수(基壇解體補修)
- 옥개부(屋蓋部) 해체(解體) 번와보수(翻瓦補修)
- 목부(木部) 해체보수(解體補修)
- 초석(礎石) 드잡이 보수(補修)
- 교체부재(交替部材) 고색(古色) 땀 단청(丹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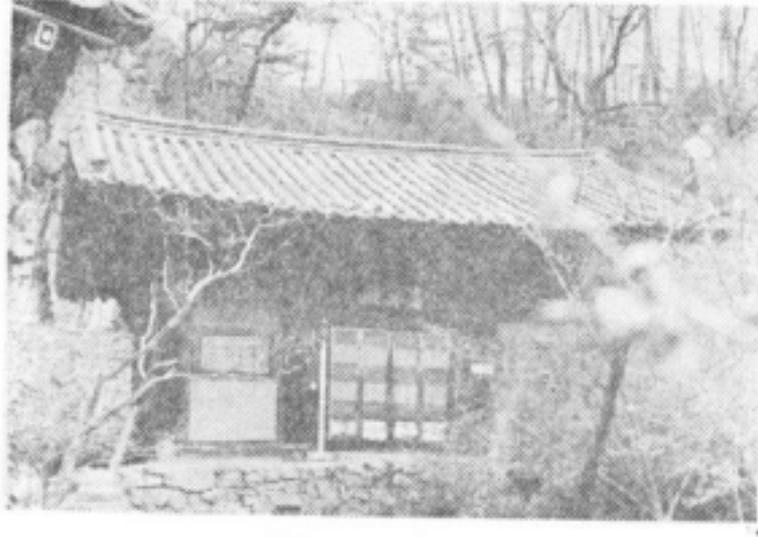
- 건물주변정리(建物周邊整理)
- C형(形) 안내판(案内板) 신설(新設)

경상북도(慶尙北道) 울진군(蔚珍郡)에서는 예산관계상 승인(承認) 당해연도(當該年度)에는 공사(工事)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1984년에 군비(郡費) 35,000,000원과 불영사(佛影寺) 자체부담(自體負擔) 10,000,000원 등 45,000,000원의 예산(豫算)을 확보하여 공사(工事)를 발주하기에 이르렀다. 삼성건축설계사무소(三成建築設計事務所)(대표 장기인)에서 설계(設計)된 불영사(佛影寺) 보수공사(補修工事)는 1984년 5월 10일 울진군(蔚珍郡)(군수(郡守) 이병목(李秉睦))에서 발주(發注)되어 삼성토건(三盛土建)(주(株))(대표(代表) 배기상)와 41,200,000원으로 계약되었고 현장대리인(現場代理人)으로는 동사(同社) 소속의 문화재보수기술자(文化財補修技術者) 이일선(李一善)(등록번호(登錄番號) 第 53호(號))씨가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술공(文化財修理技術工)으로는 목공(木工)에 박종국(등록번호(登錄番號) 第 490호(號)) 와공(瓦工)에 박덕근(등록번호(登錄番號) 第 331호(號)) 미장공에 방청일(등록번호(登錄番號) 第 690호(號)), 드잡이공에 박기영(등록번호(登錄番號) 第 188호(號))씨가 공종별(工種別)로 작업을 담당하였고 고색단청(古色丹青)에는 문화재단청기술자(文化財丹青技術者) 이재수(등록번호(登錄番號) 第 175호(號))씨가 기존단청문양(既存丹青文樣)을 모사(模寫)하고 교체(交替)된 부재(部材)에 대한 고색단청(古色丹青)을 하였다. 공사감독관(工事監督官)으로는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문화재보수과(文化財補修課)의 정상철(鄭相澈) 건축기사(建築技士)가 담당하여 시공관리(施工管理)와 공사(工事)를 추진(推進)하였고 고증(考證) 및 시공지도(施工指導)에는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 장경호(張慶浩) 미술공예실장(美術工藝室長)과 문화재보수과(文化財補修課) 전유태(田有泰) 건축기좌(建築技佐)가 담당(擔當)하였다.

### 3. 응진전(應眞殿)의 구조(構造)

응진전(應眞殿)은 정면(正面) 3칸(間), 측면(側面) 2칸(間)의 사면(四面)이 포(包)로 짜여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建物)로서 내외(內外) 각 2출목(出目)의 7량(樑)집이며 면적(面積)은 34.36㎡(10.39평)이다. 기단(基壇)은 자연석(自然石)으로서 막돌을 뒷채움으로 다진 허튼층쌓기 수법(手法)으로 축조(築造)되었다. 전면(前面) 기단(基壇)의 높이는 1.0m로써 지형(地形)에 따라 구성(構成)되었고 후면기단(後面基壇)의 높이는 20cm이다. 초석(礎石)은 가공(加工)하지 않은 큰 자연석(自然石)으로 규격은 일정하지 않으나 직경(直徑)이 80cm~120cm 정도이다. 기둥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은 배흘림 기둥으로 창방(昌枋)과 평방(平枋)을 얹고 주두(柱頭)를 놓았다. 포(包)는 주심외(柱心外)에 전(前), 후(後) 여간(御間)에는 각(各) 2개(個)의 간포(間包)를, 측면(側間)과 측면(側面)에도 주심외(柱心外)에 각(各) 1개(個)씩의 주간포(柱間包)를 얹고 보와 도리(道里)를 받쳐서 맞배지붕으로 구성(構成)하였다. 기와는 그간 수차(數次)의 번와공사(翻瓦工事)로 인하여 규격이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기와로 이어졌으며 막새기와를 사용(使用)하지 않고 와구토로 마감하였다. 내부(內部)는 빗받자와 우물받자로 천정(天井)을 꾸며 단청(丹青)을 하였고 마루는 귀틀을 짠 우물마루 이긴 하나 언제인가의 개수(改修)로 인하여 약간 변형(變形)된 것 같다. 이 건물(建物)의 특징(特徵)은 다포건물(多包建物)이면서, 지붕의 형태(形態)를 맞배지붕으로 꾸며진 것인데 이런 형태(形態)의 특징(特徵)을 가진 현존(現存)하는 건물(建物)로는 조선중기(朝鮮中期)의 건물(建物)인 충북(忠北) 보은(報恩) 법주사(法住寺)의 사천왕문(四天王門), 보물(寶物) 181호(號)인 충남(忠南) 청양(靑陽)의 장곡사(長谷寺) 하대웅전(下大雄殿), 서산(瑞山)에 있는 보물(寶物) 143호(號)인

개심사(開心寺) 대웅보전(大雄寶殿), 경북(慶北) 칠곡군(漆谷郡) 소재 송림사(松林寺) 대웅전(大雄殿)(17세기경) 등(等)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다포(多包) 건물(建物)이면서 부연



응진전 보수전 현황

#### 응진전 보수전 현황

(附椽)이 없는 홑처마 지붕으로된 건물(建物)도 흔하지 않아 양식상(樣式上) 특이(特異)한 건물(建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 건물(建物)은 경역(境域) 서편(西便)에 아늑한 곳에 자리 잡고 있고 건물규모(建物規模)가 매우 아담하며 소박하고 아름다운 건물(建物)로서 건물세부(建物細部)로 보아 조선초기적(朝鮮初期的) 수법(手法)과 중기적(中期的)인 수법(手法)이 한 건물(建物)에 공존(共存)하고 있는 매우 중요(重要)한 건조물(建造物)임을 알 수 있다.

### 4. 보수공사(補修工事) 개요(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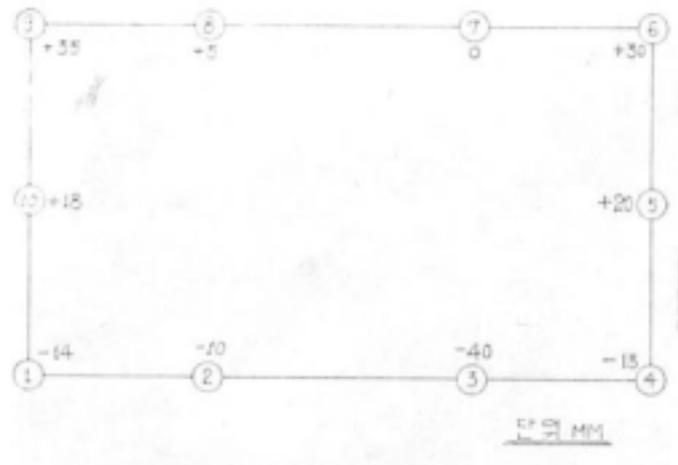
#### 가. 해체공사(解體工事)

건물해체시(建物解體時) 해체부재(解體部材)등을 풍우(風雨)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응진전(應眞殿) 건물(建物)을 완전히 덮는 가설(假設) 덧집과 비계를 견고히 설치하고 상부구조(上部構造)로부터 해체공사(解體工事)를 실시하였다. 해체(解體)된 부재(部材)는 각(各) 부재별(部材別)로 번호를 부착(附着)하여 조립시(組立時)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재사용 불가능(不可能)한 부재(部材)는 별도로 보관토록 하였다. 건물해체범위(建物解體範圍)는 창방(昌枋) 이상을 해체(解體)하고 교체(交替)하여야 할 기둥 및 하방(下枋)등을 해체(解體)한 후 재조립(再組立)하였다. 또한 건물해체시(建物解體時) 주요가구재(主要架構材)에 대한 실측확인작업(實測確認作業)이 실시되었다.

#### 나. 기단(基壇) 및 기초공사(基礎工事)

건물(建物)의 기단(基壇)바닥은 전면(前面)이 시멘트 몰탈로 발라져 있었으며 좌우면(左右面)과 후면(後面)바닥은 흙바닥으로 되어 있었고 자연석(自然石)의 기단(基壇) 면석(面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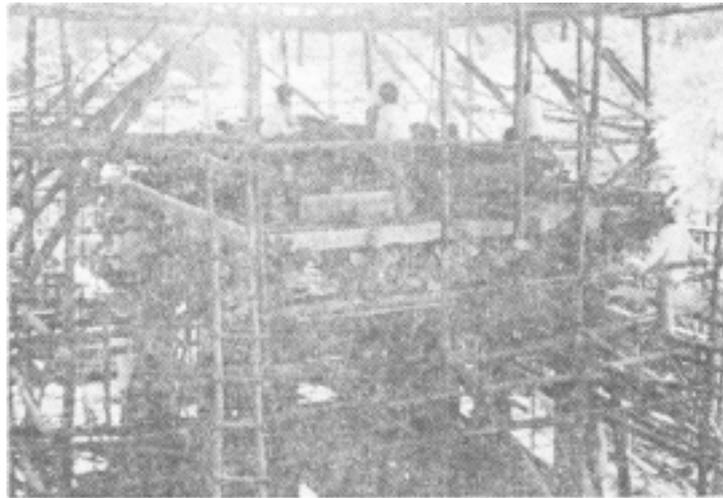
이완(弛緩)되고 일부 탈락(脫落)되어 있었다. 전면기단(前面基壇)은 전면(前面) 기둥 중심(中心)에서 2m가 내밀어져 있었으며 처마끝에서는 30cm 안으로 쌓여져 있었다. 후면기단(後面基壇)은 기둥 중심(中心)에서 1.65m 내밀어져 자연석(自然石) 1단(段)으로 설치(設置)되어 있었다. 기단(基壇)바닥의 시멘트몰탈과 흙을 제거하고 기단면석(基壇面石)을 해체(解體)한 후 뒷채움 잡석을 20cm 두께로 충분히 넣어 다진후 기존(既存)의 양식(樣式)과 같게 재축(再築)하고 바닥은 큰 잡석으로 다짐한 후 강회, 진흙, 백토를 1 : 2 : 2의 비율(比率)로 혼합(混合)하여 다짐하였다. 기초석(基礎石)은 가공(加工)하지 않은 큰 자연석(自然石)을 사용(使用)하였으며 다각형태로서 크기는 일정치 않다. 건물(建物)의 전면초석(前面礎石)이 많이 침하(沈下)된 상태(狀態)여서 각(各) 기둥의 높이 측량(測量)으로 기초침하상태(基礎沈下狀態)를 측정(測定)하였다. (도면참조(圖面參照)) 측정결과(測定結果) 전면(前面) 기둥 중 좌우(左右) 우주(隅柱)의 초석(礎石)(1.4번 초석(礎石)) 침하(沈下)가 가장 심하여 후면(後面) 우주(隅柱)보다 약 45mm 침하(沈下)되었고 중앙간(中央間) 우측(右側) 기둥의 초석(礎石)(3번 초석(礎石))도 후면(後面) 같은 위치(位置)의 초석(礎石)보다 40mm 침하(沈下)되었음을 확인(確認)하였다. 특히 전면(前面) 중앙간(中央間) 우측(右側) 기둥의 초석(礎石)(3번 초석(礎石))은 다른 주초석(柱礎石)과 달리 그 크기가 65cm 정도로 가장 얇고 작아 3조각으로 깨어져 있었다. 각(各) 주초석(柱礎石)의 침하상태(沈下狀態) 측정결과치(測定結果值)는 다음 도면과 같다.



후면(後面) 주초석(柱礎石)에 비해 전면(前面) 주초석(柱礎石)이 전체적(全體的)으로 침하(沈下)된 원인(原因)은 전면(前面) 기초부분(基礎部分)이 연약(軟弱)한 성토지반(盛土地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침하(沈下)로 인한 변형(變形)이 적은 후면(後面) 기둥의 높이를 보아 평주(平柱)보다 우주(隅柱)를 1촌(寸)(약 30mm) 높혀 솟음을 주었음을 확인(確認)하였고 이를 기준(基準)으로 하여 전면초석(前面礎石) 4기(基)를 드잡이 하였다. 즉 8번 기둥과 9번 기둥 높이를 기준(基準)하여 1번과 4번의 전면(前面) 우주초석(隅柱礎石)은 49mm, 2번과 3번의 평주초석(平柱礎石)은 각각(各各) 15mm, 45mm 드잡이 하여 기초(基礎)를 보강(補強)하였다.

#### 다. 목공사(木工事)

기둥 10개중 우주(隅柱) 4개는 직경(直徑) 480m/m(1.6척(尺)), 평주(平柱)는 직경(直徑) 450m/m (1.5척(尺)) 내외의 배흘림 기둥으로 우주(隅柱)를 평주(平柱)보다 30m/m(1촌(寸)) 정도 굵게 사용하여 시각적(視覺的)으로나 구조적(構造的)으로 안정감(安定感)을 더해주고 있다. 기둥의 상태(狀態)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狀態)였으나 우측면(右側面) 기둥 3본(本)은 부식상태(腐蝕狀態)가 매우 심한 편이었다. 우측면(右側面)의 기둥이 다른 기둥들보다 부식(腐蝕)이 심했던 원인은 지형상(地形上) 동풍(東風)(바다바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기둥의 귀솟음 상태는 전술(前述)한 바와같이 후면(後面) 기둥을 기준(基準)하여 약 30mm(1촌(寸)) 정도 이었고 창방(昌枋)과 평방(平枋)은 양호한 상태(狀態)였으나 우측(右側) 후면(後面)의 것은 평방(平枋)과 창방(昌枋) 사이로 새들이 둥지를 만들기 위하여 나무를 파고 들어가 부재(部材)가 약화(弱化)되어 매우 나쁜 상태(狀態)였다. 부식(腐蝕)이 심했던 기둥 3본(本)과 평방(平枋) 2본(本)은 부득이 신재(新材)로 교체(交替)하였으나 구부재(舊部材)를 가급적 많이 쓰기 위하여 재활용(再活用) 가능(可能)한 부재(部材)는 합성수지(合成樹脂)로 접착보강(接着補強)하여 재사용(再使用) 하였다.



遺物組立

건물조립(建物組立)

부식부위(腐蝕部位)를 끝이나 대패로 완전히 제거(除去)한 후 톨리엔으로 세척하고 10~20분(分) 경과한 후 에폭시수지(EPOXIES CIBA-GEIGU AY 103과 HY 956(경화제(硬化劑))를 5:1로 혼합(混合)하여 제거부위(除去部位)를 보강(補強)한 후 표면처리(表面處理) 마감하였다. 또한 부식부재(腐蝕部材)가 크고 심할 때에는 SV 427과 HV 427을 1:1 비율(比率)로 혼합사용(混合使用)하였고 아랄다이트 수지(樹脂)로 마감처리 하였다.



合成樹脂作業(人工木材)

합성수지작업(인공목재)

合成樹脂作業(人工木材)

노출(露出)되는 부위(部位)의 표면(表面) 처리(處理)마감은 표면색(表面色)과 나무결들을 기존부재(既存部材)와 흡사하게 조각(彫刻)하고 색을 맞추어 마감하였다. 포벽(包壁)의 내부불화(内部佛畫)를 보존(保存)하기 위하여 해체전(解體前) 불벽(佛壁)을 경화처리(硬化處理)한 후 양면에 충격방지(衝擊防止)를 위한 스티로폼을 대고 합판(合板)과 철선으로 견고하게 고정(固定)한 후 떼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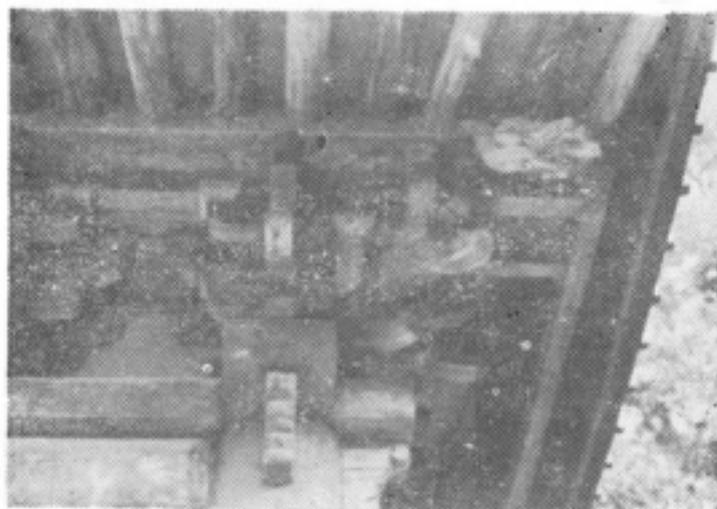


佛壁保存處理

불벽보존처리(佛壁保存處理)

포(包)의 구성(構成)은 내외(内外) 2출목(出目) 5포(包) 건물(建物)로써 일반적(一般的)인 다포(多包) 건물(建物)이나 포부재(包部材) 중 2출목(出目) 소첨차(小檐遮)의 부재(部材)의 길

이가 각각(各各) 다르다. 외부(外部) 2출목(出目) 소침차(小檐遮)의 부재(部材)길이는 68cm이며, 내부(內部) 2출목(出目) 소침차(小檐遮)의 부재(部材)길이는 62cm로서 내부(內部)의 부재(部材)가 6cm나 짧다. 이것은 구조적(構造的)으로 무리(無理)가 안가는 범위내(範圍內)에서 내부공간(內部空間)의 활용성(活用性)과 시각적(視覺的)으로 넓게 보이기 위한 실용적(實用的)인 요소(要素)라 생각된다. 또한 각(各) 포재(包材)의 1,2 제공(齊工) 형태(形態)는 일반적형태(一般的形態)이나 3제공형태(齊工形態)는 봉황(鳳凰)과 연봉우리 조각, 그리고 일반제공 형태(形態)등으로 정성드려 조각하여 배치(配置)함으로써 건물(建物)의 포배열(包配列)이 획일적(劃一的)이 아닌 변화(變化)있는 배치(配置)로 건물(建物)의 단순(單純)함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3제공(齊工)의 봉황(鳳凰)머리 조각중 봉황(鳳凰)몸체에 날개를 끼웠던 홈이 있으며 그 홈에 봉황(鳳凰)날개가 활짝 퍼져 있는 것을 상상(想像)해보면 이 응진진(應眞殿)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성드려 지어진 건물(建物)이었나를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전면(前面) 우포(隅包)위에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용(龍)이 잘 조각되어 건물(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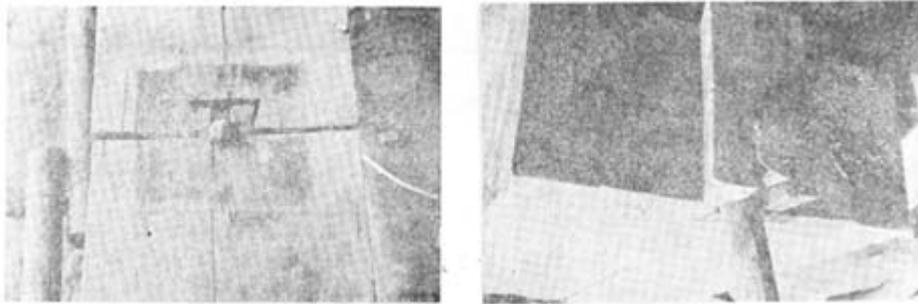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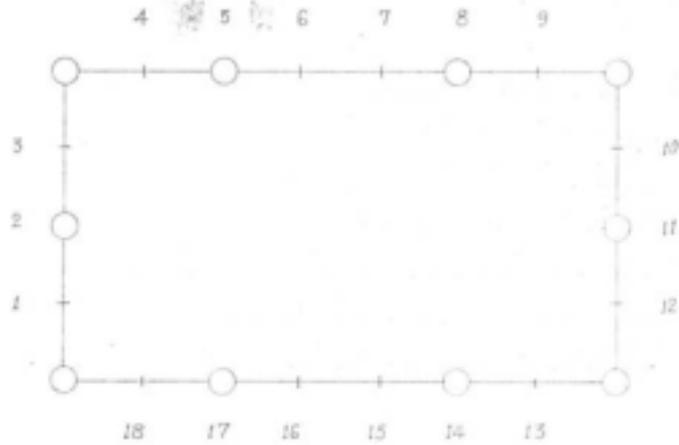
應眞殿귀포 부분

응진진(應眞殿)귀포 부분(部分)

과 조화(調和)를 이루고 있어 본 건물(建物)의 장식적(裝飾的) 요소(要素)를 한층 더해주고 있다.

포부재(包部材)는 누수(漏水)관계로 부식과손(腐蝕破損)된 것이 많고 설계(設計)보다 교체부재(交替部材)가 일부(一部) 증가(增加)되었으며 각(各) 포부재(包部材)의 교체수량(交替數量)은 위의 표와 같다.

위 표에서 포부재(包部材) 교체수량(交替數量)을 살펴보면 외부(外部)의 포부재(包部材)가 내부(內部)의 것보다 더 많이 부식(腐蝕)되어 교체(交替)되었으며 특히 포부재(包部材)중 외부(外部) 풍우(風雨)로부터 1차적(次的)으로 노출(露出)되는 외부(外部) 2출목(出目) 소침차(小檐遮)의 부식(腐蝕)이 가장 심했다.



평방(平方) 이음상태와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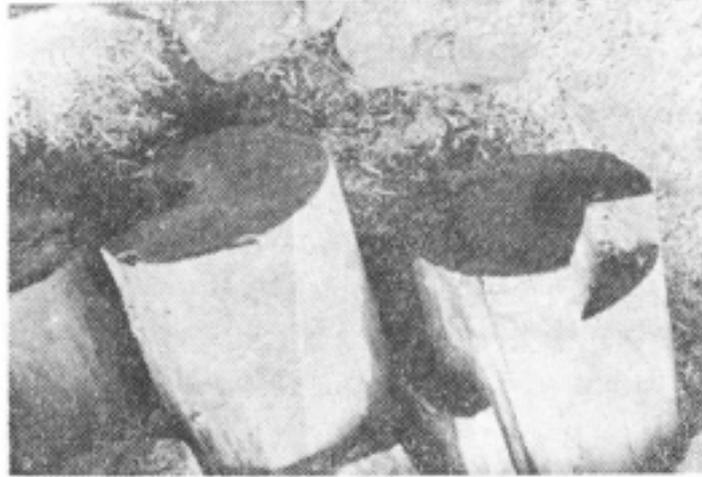
건물해체(建物解體) 과정(過程)에서 확인(確認)된 각(各) 부재간(部材間)의 이음과 맞춤은 정교(精巧)하고 성실(誠實)하게 시공(施工)된 건물(建物)이었다. 평방(平枋)과 평방(平枋)은 주먹장이음으로 연결되었으며 우주(隅柱) 위에서 직교(直交)되는 곳은 반턱으로 맞춤되었다. 평방(平枋)과 창방(昌枋)의 맞춤은 중앙간(中央間)은 2개소, 측면(側面)과 협간(夾間)은 1개소 씩에 길이 33cm(1.1척(尺))내외, 굵기 4.5cm(1.5촌(寸)) 정도의 목정(木釘)으로 주두(柱頭)와 평방(平枋)과 창방(昌枋)이 일체(一體)가 되도록 꿰뚫어 꽂았으며 끝에는 6각(角) 또는 8각(角)(직경(直徑) 3.5cm)으로 다듬어 주두하부(柱頭下部)에 꽂히도록 처리하였다.

창방(昌枋)끼리의 이음은 기둥위에서 주먹장이음으로 결구(結構)되었다. 출목(出目)위에 얹혀지는 소루(小累)와의 맞춤은 모두 6각(角) 또는 8각(角)(직경(直徑) 1촌(寸) 내외)의 축을 사용(使用)하여 포(包)를 짜서 건물(建物)의 견고성(堅固性)을 더해주고 있다. 장혀(장설(長舌))와 장혀의 이음은 일부(一部) 맞댄이음도 있었으나 대부분(大部分) 반턱으로 이음하였다. 또한 침차(檐遮)를 받는 제공(齊工)들의 반턱맞춤 홈자리에 제공(齊工)윗부분을 약 6mm(2분(分)) 정도의 홈을 양쪽으로 파내어 침차(檐遮)들과 맞춤하였으며 그 홈만큼 안쪽으로 들여 맞추어져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교(精巧)한 맞춤법을 사용(使用)하고 있다. 이는 본 건물(建物)이 여러번의 중수과정(重修過程)을 거쳤으나 포부재(包部材) 맞춤이 원초적인 맞춤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포부재 위에서 포개지는 장혀와 장혀와의 맞춤은 위 아래의 비틀림과 이완(弛緩)을 방지(防止)하기 위하여 3cm(1촌(寸))각(角)으로 깊이 4.5cm(1.5촌(寸))의 홈을 파서 축을 꽂았다 금번 보수공사(補修工事)중 부득이 신재(新材)로 보충되는 목재(木材)

는 기존부재(既存部材)와 동일(同一)한 이음과 맞춤기법(技法)으로 치목(治木), 조립(組立)하였다.

도리(道理)의 상태(狀態)는 부식(腐蝕)이 그리 심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狀態)였으며 치목방법(治木方法)이 2~3가지 형태(形態)로 나타났다. 치목(治木)된 도리형태(道理形態)는 원형(圓形)으로 깨끗하게 치목(治木)된 것과 16~32각(角) 정도의 다각형태(多角形態)로 거칠게 치목(治木)된 것이 있었다. 이는 중수(重修)과정에서 시대적(時代的)으로 목수(木手)들의 각기 다른 치목방법(治木方法)에서 오는 차이 때문이라 생각된다. 서까래의 상태(狀態)는 누수(漏水)가 되었던 관계로 부식상태(腐蝕狀態)가 심하였으며 특히 누수(漏水)가 많았던 후면(後面)은 부식(腐蝕)이 더욱 심하였다. 서까래의 말구규격(末口規格)은 직경(直徑) 165mm(5.5촌(寸)) 정도이며 장연(長椽)의 길이는 4.2m 정도로서 장연(長椽)과 단연(短椽)의 엇걸이에 직경(直徑) 4.5cm (1.5촌(寸)) 정도의 구멍을 뚫어 여러겹의 싸리나무로 된 연침(椽針)으로 이어져 있었다. 단연(短椽)의 단면직경(斷面直徑)은 장연(長椽)과 같거나 일부 작았으며 종도리(宗道里)위의 단연(短椽)과 단연(短椽)의 엇걸이 사이에도 구멍을 뚫어 싸리나무 연침(椽針)을 꽂았다. 장연(長椽)의 경우 중앙부(中央部)를 제외(除外)한 측면부(側面部)의 서까래들은 흰서까래로 자체(自體) 곡(曲)이 형성(形成)되어 있었으며 이는 유연(柔軟)한 처마곡을 구성(構成)하기 위한 구조(構造)로 생각된다. 서까래의 해체(解體)와 조립(組立)은 해체시(解體時) 배열(配列)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착(附着)하였다가 조립시(組立時) 원래(原來)의 위치(位置)에 걸었다. 부식(腐蝕)으로 인하여 교체보충(交替補充)된 서까래 교체량(交替量)은 장연(長椽)의 경우 전면(前面) 12개, 후면(後面) 26개, 총(總) 38개를, 단연(短椽)의 경우 전면(前面) 6개, 후면(後面) 13개, 총(總) 19개를 신재(新材)로 보충(補充)하였다. 서까래의 총수량(總數量)은 전후면(前後面) 합하여 장단연(長短椽) 각각(各各) 66개 씩이다.

본 건물(建物)의 구조적(構造的) 특성(特性)으로 보아 당초(當初)에는 팔작지붕이었을 가능성(可能性)도 예상(豫想)하여 보았으나 해체시(解體時) 팔작건물이었다는 직접적(直接的)인 부재(部材)(선자연(扇子椽), 추녀 등)를 발견(發見)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다포(多包)집으로 측면(側面)에도 공포(栱包)가 짜여져 있으며 대량중앙(大樑中央)에 충량(衝樑)을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어 언제 맞배지붕으로 변경(變更)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초(當初)에는 팔작건물(建物)이었을 것이라는 추정(推定)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건물해체(建物解體) 부재조사중(部材調査中) 외부(外部)로 노출(露出)된 측면(側間) 도리(道理) 끝 부분에 풍판(風板)띠장(75mm×90mm)을 걸었던 것으로 추정(推定)되는 홈이 발견(發見)되어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에 보고(報告)하고 고증(考證)에 따라 풍판(風板)을 설치(設置)할 것을 건의(建議)하였다.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1분과(分科) 10차 회의(會議)(84.7.18)에서 풍판설치(風板設置)에 대한 제안(提案)이 심의(深意)의결되어 원형복원(原形復元)과 측면포부재(側面包部材) 보호(保護)를 위한 풍판(風板)이 다시 설치(設置)되었다.



側面道里 끝부분의 風板 띠장홈

側面道里(측면도리) 끝부분의 풍판(風板) 띠장홈

본 공사(本 工事) 시행(施行) 중 발견(發見)된 가장 중요(重要)한 자료(資料)는 상량문(上樑文) 2점(點)이다. 종도리(宗道里) 장설(長舌)안에서 발견된 이 중수상량문(重修上樑文)은 25cm×7cm 정도로 곱게 접혀진 한지상량문(漢紙上樑文)으로 응진전건물(應眞殿建物)의 연혁(沿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 상량문(上樑文)의 기록(記錄)에 의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중수(重修)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량문(上樑文) 1점(點)은 강희(康熙) 55년 사중창(四重創) 상량문(上樑文)이고 다른 1점(點)은 오중창상량문(五重創上樑文)으로 도광(道光) 23년에 작성(作成)된 것이다. 현재(現在) 응진전(應眞殿)으로 불리고 있는 이 건물상량문(建物上樑文)에는 2점(點) 모두 불영사(佛影寺) 영산전(靈山殿)으로 기록(記錄)되어 있고 시창년대(始創年代)가 기록(記錄)되어 있다. 시창이후(始創以後) 1,300여년간(餘年間)의 연혁(沿革)은 알 수 없으나 만력(萬曆) 6년 즉 조선(朝鮮) 선조(宣祖) 11년인 1578년에서부터 도광(道光) 23년인 조선(朝鮮) 헌종(憲宗) 9년(1843)까지 5차례에 걸쳐 중창(重創) 또는 중수(重修)되었다고 기록(記錄)되어 있다.



(I) - 불영사 영산전 상량문 -(II)

상량문(上樑文)에 의한 중수시기(重修時期)는 다음과 같다.

○ 불영사(佛影寺) 영산전(靈山殿) 상량문(上樑文) (기(其) I)

● 신라(新羅) 동경시(東京時) 영휘(永徽) 이년(二年) (651 진덕여왕(眞德女王) 5年) 의상대사(義湘大師) 시창(始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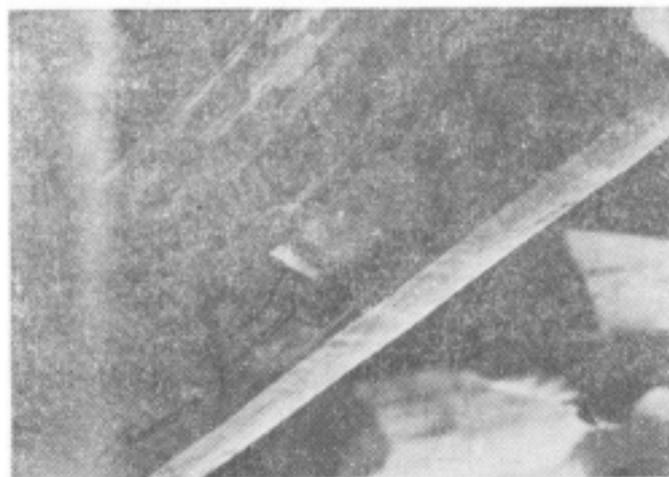
- 만력(萬曆) 육년(六年) (1578 선조(宣祖) 11年) 성원법사(性元法師) 중창(重創)
- 숭정(崇禎) 이년(二年) (1629 인조(仁祖) 7年) 정휘대사(正輝大師) 중창(重創)
- 강희(康熙) 사년(四年) (1665 현종(顯宗) 6年) 탁륜대사(卓倫大師) 중창(重創)
- 강희(康熙) 오십오년(五十五年)(1716 숙종(肅宗) 42年) 사중창상량(四重創上樑)

○ 불영사(佛影寺) 영산전(靈山殿) 상량문(上樑文) (기(其) II)

- 도광(道光) 이십삼년(二十三年) (1843 헌종(憲宗) 9年) 중창(重創)

강희(康熙) 55년 (1716)에 넣었던 상량문(上樑文)(기(其) I)에 의하면 40~50年

주기(週期)로 중수(重修)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도광(道光) 23年(1843)에 넣은 상량문(上樑文)(기(其)II)중수기록(重修記錄)으로 보아 127年이란 기간(期間)동안 보수기록(補修記錄)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當時) (강희(康熙) 55年) 대대적인 보수(補修)를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도광(道光) 23年 중수이후(重修以後) 금번 공사(工事)는 140年 만에 대보수공사(大補修工事)를 시행(施行)한 것이다. 강희(康熙) 55年에 넣은 상량문(上樑文)의 크기는 62×86cm이며 도광(道光) 23年에 넣은 상량문(上樑文)의 크기는 56×94cm이다. 상량문(上樑文)을 넣었던 종도리(宗道里)의 홈은 25cm×8cm의 크기로 상단(上端)에는 뚜껑을 받기 위하여 턱을 만들었다. 종도리(宗道里) 하부(下部) 즉 장설(長舌)와 접해 있는 부분에 강희(康熙) 55年(1716)에 적은 묵서명(墨書銘)이 발견되었으며 내용(內容)은 상량문(上樑文)의 내용(內容)과 같았다.



—宗道里에서 發見된 上樑文과 墨書銘—

-종도리에서 발견된 상량문과 묵서명-  
(宗道里에서 發見된 上樑文과 墨書銘)

## 라. 미장공사(美裝工事)

본 건물(建物)의 기존외벽(既存外壁)은 근래에 보수(補修)되었던 것으로 회벽과 시멘트몰탈로 미장(美裝)되어 있었다. 기존벽체(既存壁體)의 구성(構成)을 살펴보면 벽체(壁體)를 보강(補強)하기 위하여 85mm×100mm 규격(規格)의 육송각목(陸松角木)을 대패 마감하지 않은 거칠은 상태(狀態)로 종횡(縱橫)으로 설치(設置)하고 이 각목(角木)들을 테두리로 하여 가는 나무로 가로, 세로 질러넣어 가늘은 새끼로 엮어 심벽(心壁) 구조(構造)를 형성(形成)하였다. 그 위 진흙에 짚을 섞어 벽을치고 미장(美裝)되어 있었다. 벽체공사(壁體工事)는 변형(變形)된 벽체(壁體)를 완전해체(完全解體)하여 재활용(再活用) 가능한 심벽(心壁) 내부(內部) 목재(木材)는 재사용(再使用)하여 새끼를 엮어 기존벽체(既存壁體)와 같이 초벽(初壁)을 치고 토사벽(土砂壁)으로 미장(美裝)하여 벽면(壁面)에 토육색(土肉色)으로 고색가칠(古色假漆) 마감하였다. 고막이는 근년에 시멘트 몰탈로 발랐던 것을 해체(解體)하고 재래수법(在來手法)대로 기와편쌓기로 하여 강회와 진흙을 배합하여 미장(美裝)하였다.

## 마. 기와공사

기존기와의 상태(狀態)는 매우 불량하였으며 암기와 물림 상태도 2겹 정도로 이어져 있었다. 특히 솟기와는 근년에 번와(翻瓦)한 것으로 동파(凍破)가 심하였으며 후면(後面)은 더욱 파손(破損)이 많은 편이었다. 규격도 여러 가지 형태(形態)였으며 솟기와는 대략 2가지로 앞폭 16cm 뒷폭 15cm(미구(尾口)폭 12cm) 길이 36~41cm 의 규격으로 단순(單純)한 등무늬가 있는 것과 최근(最近)에 교체(交替)된 기와는 앞, 뒤 폭이 15cm(미구(尾口)폭 12cm) 길이 33cm 정도로써 등무늬가 없는 것이었다. 금번 공사(工事)에 새로 보충(補充)된 기와는 K·S공장제품(工場製品)의 전통(傳統)기와로서 대와(大瓦)를 사용(使用)하였으며 솟기와 등무늬는 기존(既存) 기와의 것과 같은 형태(形態)로 제작(製作) 사용(使用)하였다. 보충(補充)된 기와의 수량은 암기와 2,570매 솟기와 1,100매이다. 기와 시공(施工)은 산자위에 적심목(積心木)을 충분히 넣어누르고 보토(補土)를 20cm정도 깎후에 약 10cm 두께로 강회다짐 하고 암기과를 3겹으로 물려 잇고 솟기와 끝에는 와구토를 발라 마감하였다.

## 바. 단청공사

단청(丹青)은 심히 퇴락(頽落)되어 외부단청(外部丹青)은 문양(紋樣)을 거의 확인할 수 없었으며 내부단청(內部丹青)은 비교적 보존상태(保存狀態)가 양호하였다.

내부(內部) 우물천정(天井)에는 연화문양(蓮花紋樣)을 넣어 단청(丹青)하였고 덧장혀에는 당초문(唐草紋)을 엮어그리고 그 사이에 불화(佛畵)를 그렸으며 빗반자위에 구름문양(紋樣)이 단청(丹青)되어 있었다. 금번 단청(丹青)공사는 신재(新材)로 보충(補充)된 연목과 포부재(包部材)에 대한 고색(古色)땀단청(丹青)을 실시(實施)하여 옛문양(紋樣)을 현상(現狀)대로 보존(保存)토록 하였으며 방충방연방부제(防虫防燃防腐劑)로 Dimefox를 3회 도포(塗布)하였다.



—補修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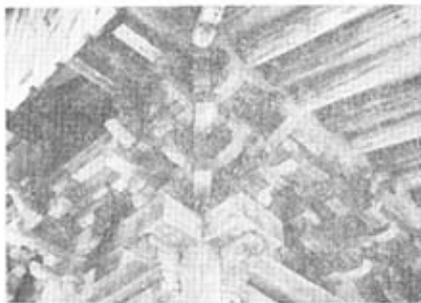
—보수전(補修前)—

— 8 5 —



補修後

—보수후(補修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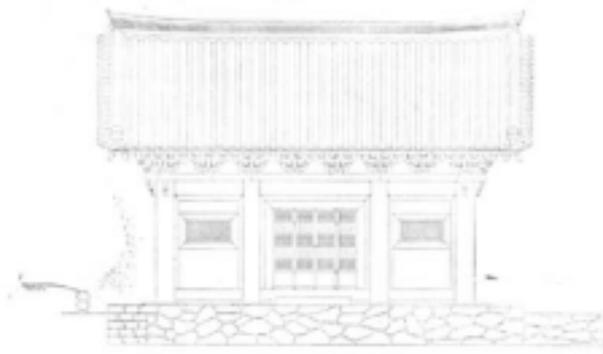


—應真殿拱包—

—응지전공포(應真殿拱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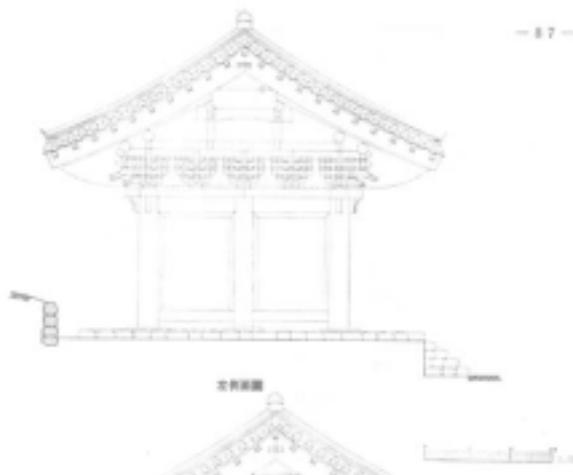


불영사 건물 배치도(佛影寺 建物 配置圖)



應眞殿 正面圖

응진전 정면도(應眞殿 正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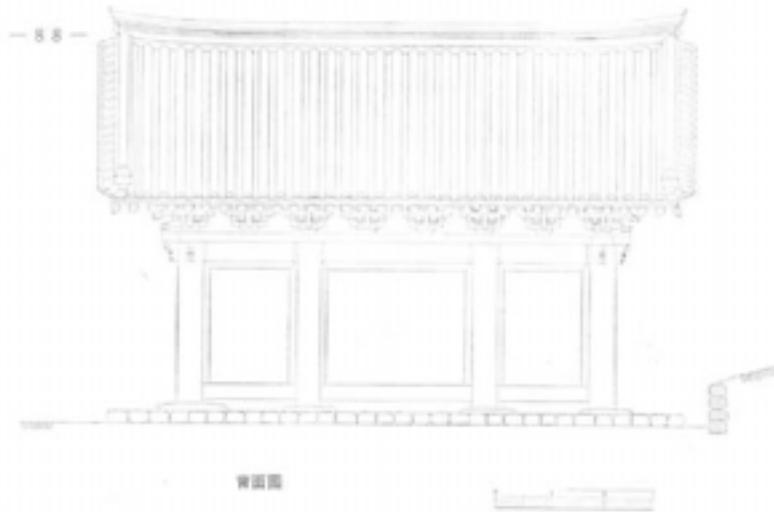


左側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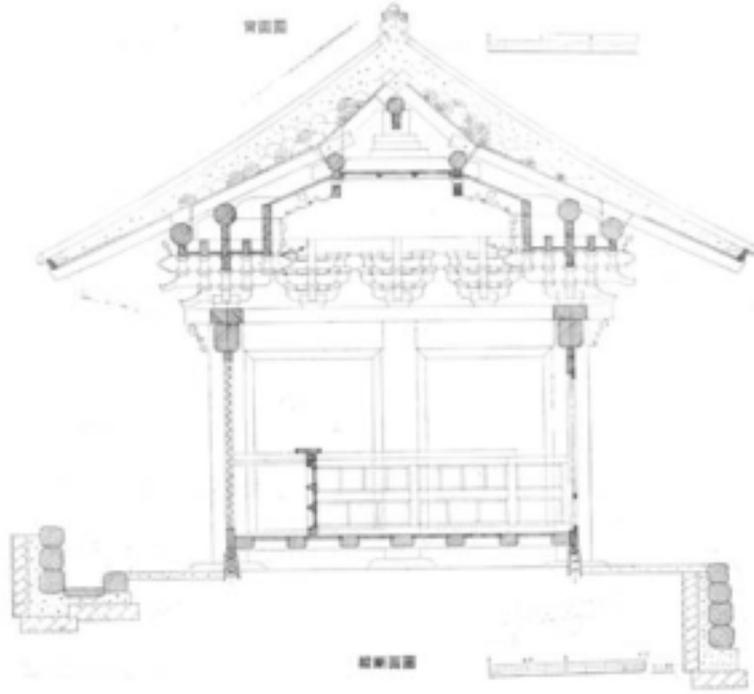
좌측면도(左側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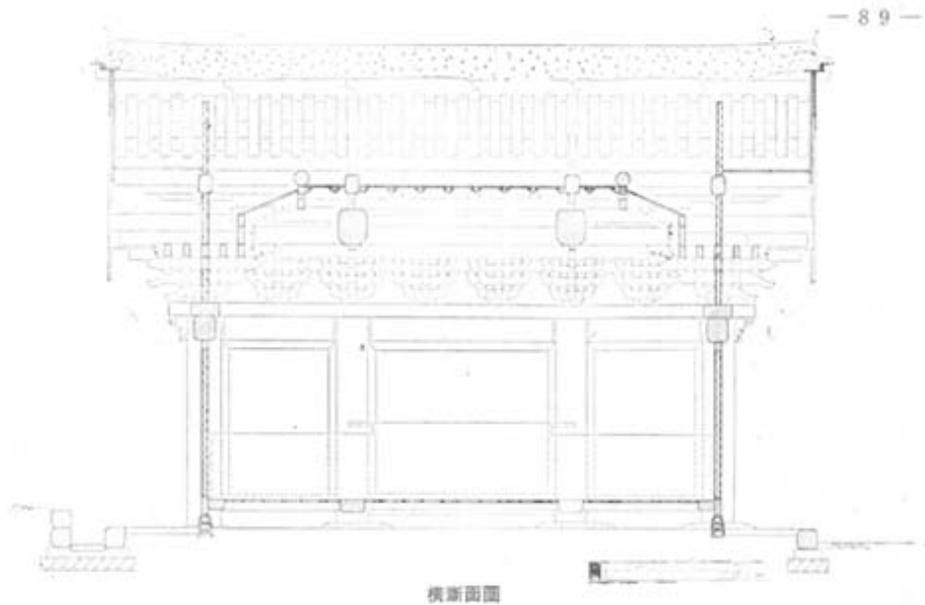
우측면도(右側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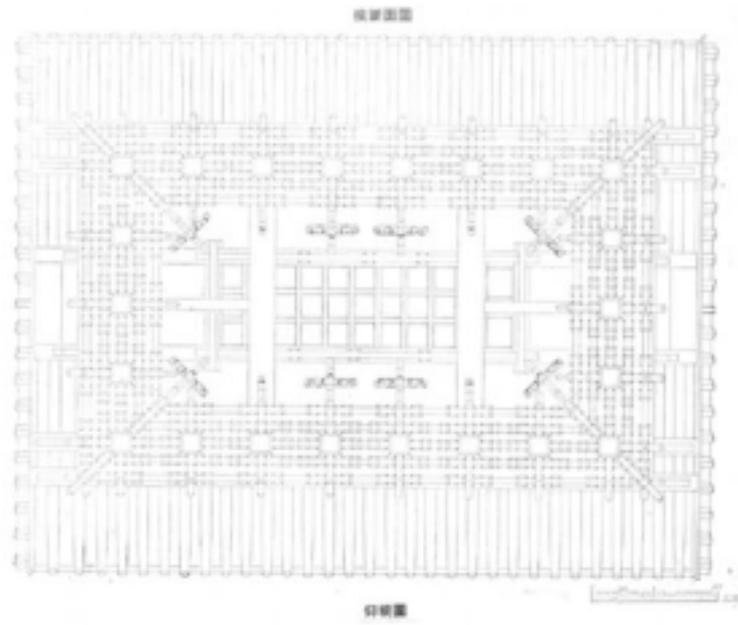
배면도(背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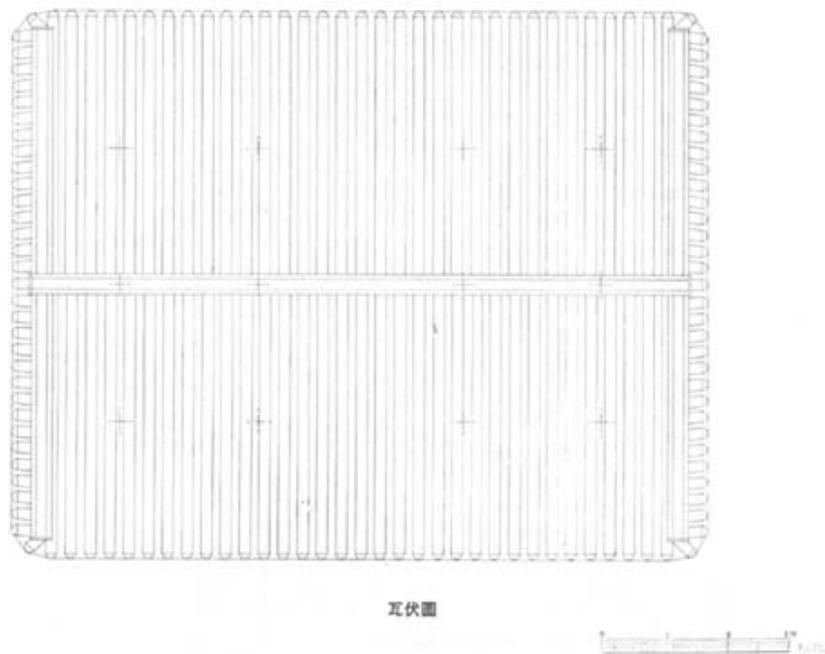
종단면도(縱斷面圖)



횡단면도(橫斷面圖)



양시도(仰視圖)



와복도(瓦伏圖)